

# “코로나 감염력 있어도 3차 접종 권고”

### 방역당국 “예방접종 차수 늘수록 재감염·사망 위험 낮다” ‘희망하는 경우’에서 기준 변경... 소아·청소년 접종 강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또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소아·청소년이 누적 44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기저질환자,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접종 대상자인 만 12~17세 고위험군과 18세이상 성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후 3차 접종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접종까지 받는 것을 권고하고, 3·4차 접종은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해왔다.

방역당국이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 기준을 바꾼 것은 최근 국내 감염자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차

수가 증가할수록 2회 감염 발생 위험과 감염 후 사망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1회 감염자(감염 후 45일 경과) 1778만1756명, 2회 감염자 8만4646명의 접종차수별 2회 감염 발생 및 사망 진행 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접종군의 재감염(2회 감염) 발생 위험비를 1로 봤을 때 1차 접종 완료자의 위험비는 0.99, 2차 접종완료자는 0.52, 3차 접종완료자는 0.26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 완료군의 재감염 위험도가 미접종자보다 74% 낮다는 의미다.

사망 진행 위험비 역시 접종횟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이와 함께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추이 분석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은 지난해 11월 첫 사례 보고 이후 누적 44명으로 집계됐다. 소아·청소년 사망자 중 9세 이하가 65.9%

(29명)로 10~18세(34.1%·15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 비율은 남(54.5%), 여(45.5%) 비슷했다. 52.3%(23명)는 기저질환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기저질환은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22.7%)이었고, 내분비계 질환(11.4%), 선천성 기형(11.4%) 등이 뒤를 이었다.

예방접종 여부를 기준으로는 접종대상자인 5~11세 고위험군과 12~18세 사망자 22명 중 81.8%가 미접종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18.2%는 2차접종자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미접종자인 경우는 19명이었다.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21명은 모두 미접종자다. 0~9세 사망자는 모두 미접종자였고, 이 가운데 기저질환자는 34.5%(10명)로 파악됐다. 10~18세 사망자 중 기저질환자는 86.7%(13명), 미접종자는 73.3%(11명)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인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광주·전남에선 1만 4328명이, 전국적으로는 17만8574명이 신규 확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Beer Fest Gwangju’ 맥주축제 열려요”

### 31일~9월 5일 DJ센터... 비치펍·음악분수 등 이색 볼거리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오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야외광장에서 광주 맥주축제 ‘2022 Beer Fest Gwangju’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최하고 광주시, 서구청, 광주관광재단, 하이트진로, 하이네켄 등이 후원하는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유명맥주부터 지역 수제맥주, 비알콜맥주 등 다양한 맥주들이 전시·제공된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맥주와 함께하는 캠핑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글램핑존’ 3차 판매(홈페이지 www.beerfestgwangju.com)가 현재 진행 중이다.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는 맥주·음식 관련 28개사가 참여해 코로나19로 지친 광주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공연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테라 댄, 하이네켄 비치 펍, 음악분수

등 이색 볼거리와 13개사의 푸드트럭,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광주 대표음식 판매부스가 운영된다.

또 정동하, DJ 수라, DJ 아스타, DJ 춘자 등 국내 대표 아티스트의 공연을 포함해 EDM 파티, 삼바카니발, 감성 라이브 등 여러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도 매일 펼쳐진다.

서프샷 이벤트, 원샷 콘테스트, 광주 명소 쿨즈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더불어 광주문화재단의 디어마이광주 관련 경품 이벤트, 제주관광협회의 최신 제주여행 트렌드 홍보 및 상담,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의 광주 대표음식 관련 플랫폼 이벤트 등도 마련된다.

같은 기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세계조경가대회(IFLA)와 스타트업 투자·전시·상담회(SPLASH)도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DJ 정신’으로 국민 통합 이끌어 경제위기 극복하자”

### 김대중 서거 13주기 추도식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참석

故(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집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이끈 ‘DJ정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문을 열었다는 점을 되새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식에서 “지혜와 용기, 화해와 용서, 김대중식 정치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며 “협오의 정치, 남 탓하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숨을 노리던 작까지 용서하던 정치, 김대중식 국민 통합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하지 않으시고 화해와 용서로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며 “정권교체가 잦은 요즘 집권하신 분들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오셔서 대성통곡하시면서 ‘민주주의, 서민 경제, 한반도 평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철저히 투쟁해야 한다’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3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매우 초라하다.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 정신을 지켜오셨던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거듭나고 새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광주시립창극단원들이 김 전대통령의 넋을 위로하는 ‘씻김굿’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짐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권노갑·한광욱 동교동계 원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모진 역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화합의 한 길을 꿋꿋하게 헤쳐나간 세계적 지도자”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후대들이 그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의지를 되새기며, 시련을 견뎌라오 역사는 끝내 전진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열을 앞두고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주자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 전 대통령님께서 개척해주신 그 길을 따라 저도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도식에 참석한 박용진 당 대표 후보도 “김대중 정신의 근본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라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민주당다운 회복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호남 단일 최고위원 주자인 송감석 후보도 이날 “돌이켜보면 저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은 김대중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신을 토대로 민주당을 다시 승리의 길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휴대용 해시계’ 조선시대 ‘일영원구’ 공개

### 문화재청, 미국 경매서 매입... 19일부터 일반에 공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구(球) 모양의 휴대용 해시계 ‘일영원구(日影圓球·사진)’가 국내로 돌아왔다. 높이 23.8cm, 지름 11.2cm에 이르는 이 해시계는 전통과학기술 계승과 발전을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미국 경매를 통해 매입한 ‘일영원구’를 19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들어온 해시계는 문화재청과 국외소재 문화재단이 지난해 말 경매 출품 정보를 입수해 면밀한 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거쳐 미국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 특히 ‘일영원구’는 영침이 고정돼 있어 한 지역에서만 시간 측정이 가능했던 일반적인 해시계 ‘양부일구(仰釜日晷)’와 달리, 둥근 공 모양의 형태로 반구가 맞물려 있어 어느 지역에서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각인돼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쪽 반구에는 ‘대조선 개국 499년 경인년 7월 상순에 새로 제작하였다’는 글귀와 ‘상직현인(尙職鉉印)’이라는 인장이 새겨져 있다. 1890년 7월 상직 현이라는 인물이 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종실록’ 등 문헌에 따르면 상직현이라는 인



물은 고종대 활동한 무관으로, 주로 총어영 별장과 별궁직 등에 임명돼 국왕 호위를 비롯해 궁궐 방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경기,수도권 투자**  
**10억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 모던건설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개강(개별과정): 일시: 2022.9.13(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임구우측2층),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매월)
-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9.6(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선착순〇〇명)

####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날굴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 010-2246-1508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